

# 만문(滿文) 『화엄경속입법계품(華嚴經續入法界品)』에 관한 연구

박서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bsy2697@hanmail.net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번역 용어에 보이는 만주어 어휘의 확장 |
| II.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체재와 경명(經名)    | V. 맺는 말                   |
| III.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내용 및 한역과의 비교 |                           |

## 요약문

본 논문은 만문으로 적힌 『화엄경속입법계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만문대장경은 목판으로 현존하며, 모두 108함(函)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은 그 중 제57함에 들어 있으며, 분량은 대략 10장 정도이고, 한 장의 목판에는 상·하 각각 31행씩 판각되어 있다. 제57함에는 화엄 계통의 소경(小經) 등이 들어 있는데, 『화엄경속입법계품』은 『보현소설경』과 『도세품경』 사이에 위치하며, 경으로서의 어떤 형식이 없이 『보현소설경』에 바로 뒤이어서 만주어 경명과 본문 내용이 이어진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의 경명은, 만주어에서 경(經)을 의미하는 ‘nomun’이 아니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책의 편(篇)을 뜻하는 ‘fiyelen’으로 되어 있는데, 만문대장경의 편찬자는 『화엄경속입법계품』을 하나의 완결된 경이 아닌, 『화엄경』의 일부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내용은 마야부인이 선재에게 천주광 동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덕생 동자와 유덕 동녀의 환주(幻住) 법문으로 끝난다. 또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을 한역과 비교해 본 결과, 지바하라(地婆訶羅)가 한역한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선지식의 이름도 일치하였다. 하지만 『화엄경속입법계품』에는 한역자인 지바하라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번역에 있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범어 고유명사는 주로 음역하였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한역 용어들은 그 발음을 따라 만주어로 옮겼으며, 한역 용어의 뜻을 풀이하여 만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번역 용례들은 건륭제가 만주어의 쇠퇴를 막기 위해 실시한 만주어 어휘 확장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화엄경속입법계품』, 만문대장경, 한역대장경, 목판, 건륭제, 선지식, 선재

## I. 들어가는 말

만문대장경은 18세기 후반에 편찬되었다. 건륭제(乾隆帝, 1711-1799)는 1773년(건륭 38) 유지(諭旨)를 내려 만문대장경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티벳 승려인 장가호도극도(章嘉呼圖克圖: 또는 章嘉國師, 1717-1786)로 하여금 만문대장경의 편찬사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만문대장경의 편찬은 건륭제 이전 강희제와 옹정제 때 실시된 티벳대장경과 몽골어대장경 등 일련의 대장경 편찬사업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만문대장경의 목판은 현재까지 전해지며, 1794년 만문대장경 12부가 붉은색 잉크로 인쇄되어 티벳과 열하 등지에 분산, 소장되었다. 그 중 2부가 현재 전해지며, 그 한 부 가운데 76함은 북경고궁박물원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32함은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보관되어 있다.<sup>1)</sup>

1) 李勳, 「17-18세기 清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 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박사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만문대장경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20세기에 만문대장경의 목판 및 다수의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만문대장경은 북경 고궁박물관의 자금성출판사에서 2002년에 원래의 목판을 이용해 붉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대장경 전체를 20부 간행하였다. 이 해에 중화불교학원 도서관에서 한 부를 구입하였고, 이것은 현재 대만 법고불교연수학원(法鼓佛教研修學院)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2)</sup>

만문대장경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2012년 2월에 대만에 가서 법고불교연수학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문대장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법고불교연수학원에서는 몇 해 전부터 만문대장경 전자서고를 개설하고 리춘진 기념 재단의 후원으로 만문대장경의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온라인상에서 전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도 여기에 올려진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을 다운로드 받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sup>3)</sup>

청대 불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대에 일부 고승들의 활약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불교가 쇠퇴하였고, 팡소승(彭紹升, 1740-1796)과 양문회(楊文會, 1837-1911) 등에 의한 거사 불교가 불교계를 주도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4)</sup> 그리고 만문대장경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만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다.

청대에 편찬된 만문대장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연구가 아직 미진한 편이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sup>5)</sup>, 중국, 대만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만문대장경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법고불교연수학원의 만

---

학위논문(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p.189 각주 470) 참조.  
 2) 마르쿠스 빙겐하이머, 『滿文大藏經 電子書庫』, 『만주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p.177, 182 참조.  
 3) 본고에서는 <http://buddhisticinformatics.ddbc.edu.tw/manchu>의 만문대장경 자료를 활용하였다.  
 4) 鎌田茂雄, 『中國佛教史』(東京: 岩波書店, 1981); 이재창, 『불교 경전의 이해』(서울: 경학사, 2002).  
 5) 청대사 연구에서, 1980년대 미국의 신청사(New Qing History) 학파의 마크 C. 엘리엇은 만문사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의 저술에서 청대의 티벳불교 및 건륭제의 불교신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문대장경 전자서고 자료를 활용한 송강호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그는 만문 『반야심경』을 역주하고 영인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sup>6)</sup> 또 이훈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17-18세기에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륭제가 시행한 만문 기록의 편찬과 관련하여 만문대장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로서 만문대장경의 편찬에 대해 연구한 안윤아의 논문이 있다.<sup>7)</sup>

만문대장경과 관련한 국외 연구로는 Charles이 전사한 만문 『금강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어 해제와 함께 만문 『금강경』의 본문을 로마자로 전사한 것이 들어 있다. 또 만문대장경의 문헌 소개와 함께 경판 및 도상(圖像)에 관한 연구도 있다.<sup>8)</sup> 그런데 만문으로 번역된 각 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sup>9)</sup>

본고에서 다룬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 역시 국내 학계에서 이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만주어는 몽골 문자를 변형한 만주 문자를 사용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쓰기를 한다. 본고에서는 세로쓰기 된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만문을 뮐렌도르프(Möllendorff) 방식의 로마자 전사(transliteration) 체계에 따라 전사하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체재와 내용을 살펴보고 한역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 등과 비교하는 한편, 만문 번역에 보이는 용어상의 특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륭제의 만주어 어휘 확장 정책과도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6) 宋康鎬, 「滿文『般若心經』譯註」, 『만주연구』 제12집(서울: 만주학회, 2011), pp.264-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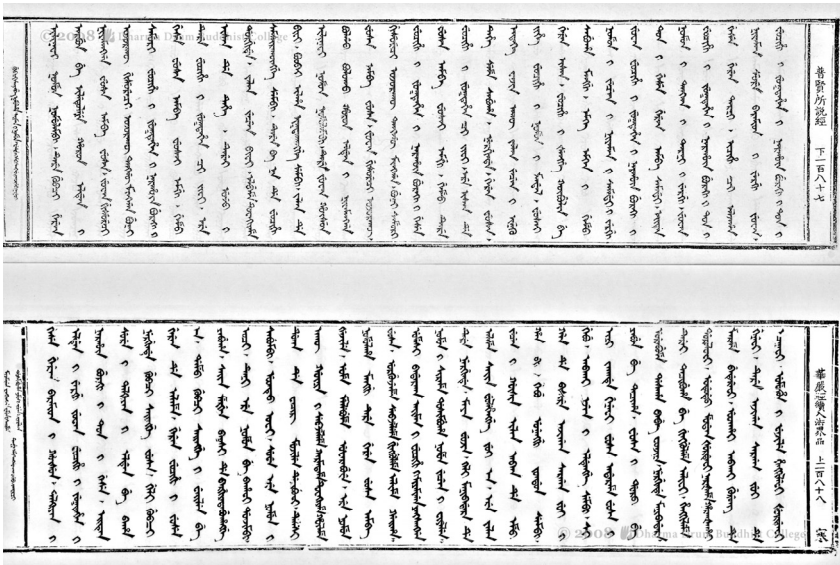
7) 안윤아, 「건륭 시기 『大藏經』의 滿文 번역과 짜까 쿠투투 3세」, 『明清史研究』 제42집(서울: 명청사학회, 2014.10).

8) 羅文華, 『乾隆滿文大藏經繪畫 藏傳佛教衆神』上, 故宮博物院 編(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9) 만문 경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 林士鉉, 「乾隆皇帝與滿文大藏經·救護日食經」, 『故宮學術季刊』(臺北, 第32卷 第1期)이 있다.

## II.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체재와 경명

만문대장경은 목판으로 현존하며, 총 108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은 그 중 제57함에 들어 있으며, 『보현소설경』과 『도세품경』 사이에 위치한다. 분량은 대략 10장 정도이며, 한 장의 목판에는 상·하 각각 31행씩 판각되어 있다.



〈자료 1〉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처음 목판

위 <자료 1>의 하단에서, 『보현소설경』이 끝나고 『화엄경속입법계품』이 이어지는 부분을 전사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3: šejile,           ume melebume ufarabure,           ere nomun

암송하라. 빠뜨리거나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 이 경을

14: nomulaha manggi tere geren fusa amba

설하시자           그 모든 보살 큰

15: fusa, urgunjeme sebjeme gingguleme alime gaiha,<sup>10)</sup>

보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삼가 받들어 받아 얻었다.

여기까지가 『보현소설경』의 내용이며, 이 다음에 『화엄경속입법계품』의 경명이 이어진다.

16: umesi badaraka aiman i fucih i miyamigan yangsangga

지극히 넓은 부락의 부처의 장식이 화려한

17: nomun i sirame dosimbuha nomun jecen i fiyelen,<sup>11)</sup>

경의 계속해서 들어가게 한 법 경계의 품.

이와 같이 『화엄경속입법계품』은 경으로서의 어떤 형식도 없이 『보현소설경』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곧장 ‘화엄경속입법계품’에 대한 만주어 명칭과 본문 내용이 이어진다. 이러한 체재는 만문대장경 편찬자들이 가졌던 『화엄경속입법계품』과 『화엄경』 「입법계품」간의 문헌 관계를 추정케 한다.

위 인용문에서, “nomun i sirame”의 “i”를 기준으로 하여, 앞 부분은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만문 번역이고, 뒷부분은 ‘입법계품’의 만문 번역이다. 즉 이것은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한 품인 「입법계품」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만문 번역자는 『화엄경속입법계품』을 하나의 완결된 경이 아닌, 『화엄경』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서두에는 만문대장경 각 경의 처음에 보이는 범어, 티벳어, 한문 경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만문 경명이 경을 의미하는 ‘nomun’이 아니라 책의 편을 의미하는 ‘품(品)’ 또는 ‘장(章)’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

10) <華嚴經續入法界品 上188> 13-15행.

11) <華嚴經續入法界品 上188> 16-17행.

- 18: tere nerginde, maya fujin, geli manibadara de  
그 때에, 마야 부인이, 다시 보배로운 어진이에게
- 19: alame sain fulehengge jui a, ere jalan  
말하기를, 좋은 뿌리를 가진 아들아, 이 세계
- 20: jecen i gūsin ilan abka de emu  
경계의 33 하늘에 한
- 21: han bi, gebu unenggi jondon sembi,  
왕이 있으니, 이름이 ‘진실되게 기억함’이라고 한다.
- 22: han de bisire ajigan sargan jui i  
왕에게 있는 어린 딸의
- 23: gebu, abkai ejen i eldengge sembi, si  
이름은, ‘하늘의 주인의 빛남’이라고 한다. 그대는
- 24: ini jakade genefi fusa adarame fusa i  
그 까닭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 25: yabun be taciha, fusa i doro be  
행을 배웠고, 보살의 도를
- 26: urebume dasaha babe fonjina, nerginde manibadara,  
익히고 다스렸는지를 물으라. 때에 보배로운 어진이는
- 27: terei tacibuha be gingguleme alifi, hengkileme  
그 가르침을 황공해하며 받고서 머리 조아려 절하며
- 28: dorolofi, ududu mudan šurdefi narašame harkašahai  
예를 행하고서, 여러 차례 돌고서 그리워하며 우리러보더니
- 29: marame bederefi, uthai abkai gurung de  
사양하고 물리갔다. 곧바로 하늘의 궁전으로
- 30: genefi, tere ajigan sargan jui de  
가서 그 어린 딸에게
- 31: acanafi, umuhun i fejile hengkilefi šurdefi  
만나러 가서, 발등의 아래에 머리 조아려 절하고 돌고는
- 1: giogin arame juleri ilifi fonjime,<sup>12)</sup>  
손바닥을 세우고 앞으로 <가> 서서 물었다.

12)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88> 1행.

이처럼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본문 내용은 마야 부인이 선재에게 천주광 동녀를 찾아갈 것을 권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한역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며,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료 2〉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마지막 목판

위 <자료 2>에서 보듯이,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마지막 부분은 『도세품경』의 처음 부분과 이어진다.<sup>13)</sup> 그런데 『도세품경』의 서두에는 범어, 티벳어, 만주어, 한문 경명이 제시되어 있어,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서두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륭제는 장가호도극도의 건의에 따라 대만야(大般若), 대보적(大寶積), 대집(大集), 화엄(華嚴), 대만열반(大般涅槃) 등의 경을 만문으로 번역할 때 이와 관련된 지분경(支派經)들에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간단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sup>14)</sup> 그러한 번역과 관련된 정황이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도 보여진다고 생각된다.

13) <度世品經 上198>

14) 大清高宗(乾隆)皇帝實錄(十九), 卷926, 乾隆三十八年 癸巳二月 甲戌(臺灣華文書局總發行, p.13419 상단)



### III.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내용 및 한역과의 비교

#### 1. 經文 내용 비교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은 그 분량이 권수나 페이지수로 볼 때 『화엄경』 총 분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sup>15)</sup> 지바하라(地婆訶羅)가 680년에 한역한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즉 마야부인이 선재에게 천주광 동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덕생 동자와 유덕 동녀가 선재에게 환주(幻住) 법문을 설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번역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장(法藏)의 『탐현기(探玄記)』에 의하면,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은 진역(晉譯)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마야부인 이하 미륵보살 전까지 8, 9장의 경문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범본(梵本)으로부터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sup>16)</sup> 그러므로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은 6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마지막 부분을 전사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 jui a,                                  meni juwe niyalma damu

<좋은 뿌리가 있는> 아들 아, 우리 두 사람은 단지

2: ere fusa i umesi ukcara        babe same

이 보살의 완전히 벗어난 것[해탈]을 알

3: mutehe dabala, geren fusa amba fusa

수 있었을 뿐이며, 많은 보살 큰 보살이

4: jecen akū eiten baitai wali i

경계(끝) 없이 모든 일의 요술의

15) 해주 스님, 『화엄의 세계』(서울: 민족사, 2003), p.127.

16) 法藏, 『探玄記』卷1(『대정장』35, p.122下):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제7권(東京: 大東出版社, 1968(昭和43)), p.470 참조.

- 5: asu de dosinara mangga tere gungge  
그물에 들어가기로 잘하는 그 공
- 6: erdemu yabun oci be adarame same  
덕 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
- 7: mutembi gisureme mutembini, nerginde ajigan haha  
수 있으며 말할 수 있겠는가. 때에 어린 남자
- 8: jui ajigan sargan jui beyei umesi  
아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의 완전히
- 9: ukcara<sup>17)</sup> be gisurefi, geren sain fulehe  
벗어남을 말하고서, 모든 좋은 뿌리
- 10: gūnime akunarakū i turgun de manibadara i beye  
생각하여 이르지 않는 까닭에 보배로운 어진이의 몸이
- 11: nemeyen nesuken gincihyan saikan de isibuha.<sup>18)</sup>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고 빛남을 얻게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한역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남자야, 우리들 두 사람은 다만 이 보살의 해탈만을 알 수 있을 뿐이  
며, 저 모든 보살마하살이 가없는 모든 일의 요술 그물에 잘 들어가는 그  
공덕의 행이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동자·동녀가 스스로의 해탈을 설하고서 모든 선근의 힘이 부사의  
하므로 선재의 몸으로 하여금 부드럽고 연해지며 광택을 내게 하였다.<sup>19)</sup>

위의 인용문들을 비교해 보면, 한 구절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  
다고 하겠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은 만문의 “geren sain fulehe gūnime akunarakū

17)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 “ukcara”는 “ukcaran”으로 적혀 있기도 하다.

18) <度世品經 上198> 1-11 행.

19) 地婆訶羅 譯,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대정장』10, p.878下), “善男子我等二人 但能知此菩薩解脫 如  
諸菩薩摩訶薩 善入無邊諸事幻網 彼功德行 我等云何能知能說 時童子童女 說自解脫已 諸善根力不思議故  
令善財身 柔軟光澤.”

i turgun de”이다. 이것은 “모든 좋은 뿌리 생각하여 이르지 않는 까닭에”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에는 “모든 선근의 힘이 부사의하므로”라고 되어 있어, 만문에는 없는 ‘역(力)’자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60권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남자여,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보살의 해탈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보살마하살은 끝없는 모든 일의 요술 그물에 잘 들어가니, 그 공덕행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고 설할 수 있겠는가.” 그때 동자·동녀는 스스로의 해탈을 말하고 나서 모든 선근의 힘이 불가사의한 까닭에 선재의 몸으로 하여금 부드럽고 연하며 빛나고 윤기나면서 스스로 본래의 원(願)을 말하게 하였다.<sup>20)</sup>

이것은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 및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에서처럼 ‘선근력’이라 되어 있고, 또 말미에 “스스로 본래의 원(願)을 말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80권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이와 같은 공덕을 듣고 능히 한량없는 보살妙行을 열어 보이고, 능히 한량없는 광대한 부처님 법을 성취하여 펼 듯이 기뻐하고는 덕생과 유덕의 발에 정례하고 한량없이 주위를 돌고는 은근하게 우러러보며 사양하며 물러나 떠나갔다.<sup>21)</sup>

이처럼 80권본은 앞의 세 경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은 지바하라가 한역한 『대방

20) 『화엄경』 「입법계품」(60권)(『대정장』9, p.767中), “善男子 我等二人 但能知此菩薩解脫 如諸菩薩摩訶薩 善入無邊諸事幻網 彼功德行我等云何能知能說 時童子童女 說自解脫已 諸善根力不思議故 令善財身柔軟光澤 自說本願.”

21) 『화엄경』 「입법계품」(80권)(『대정장』10, p.422中), “時善財童子 聞善知識如是功德 能開示無量菩薩妙行 能成就無量廣大佛法 踊躍歡喜 頂禮德生及有德足 遶無量匝 殷勤瞻仰 辭退而去.”

광불화엄경입법계품』과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2. 53선지식의 이름 비교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처음에 복성 동쪽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두루 여러 선지식들을 역참한 뒤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는 것으로 끝난다.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차례로 찾아가게 되는 선지식들은 직업이나 지위, 성별 등이 다양하다. 그들은 모두 53명인데 이들을 보통 53선지식이라 부른다.

6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문수사리보살을 선두로 하여 공덕운(功德雲) 비구· 해운(海雲) 비구… 중략 …마야(摩耶) 부인· 천주광(天主光) 동녀· 변우(遍友)라는 동자 스승· 선지중예(善知衆藝) 동자· 현승(賢勝) 우바이· 견고해탈(堅固解脫) 장자· 묘월(妙月) 장자· 무승군(無勝軍) 장자· 시비최승(尸毘最勝) 바라문· 덕생(德生) 동자와 유덕(有德) 동녀·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의 순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은 41번째 선지식인 마야 부인이 선재에게 천주광 동녀를 찾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덕생 동자· 유덕 동녀에게서 환주(幻住)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 그 과정에서 모두 11명의 선지식이 등장하며, 선지식들의 이름은 60권본과 동일하다.<sup>22)</sup>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의 선지식 이름을 살펴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선지식은 마야 부인이며, 마야는 만주어로 “maya”이다. 마야 부인이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천주광 동녀인데, 천주광은 만주어로 “abkai ejen i eldengge”이다. 천주광 동녀가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변우이며, 만주어로는 “bireme guculerengge”(두루 친구로 사귀)이다. 변우가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선지중예인데, 만주어로는 “eiten muten be sara mangga”(모든 藝를 아는 것이 능숙함)이다. 선지중예는 선재에게 해탈에 들어가는 근본이 되는 42가지 글자와,

22) 53선지식의 이름은 60권본과 80권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80권본에는 49번째 선지식의 이름이 ‘시비최승’이 아니라 ‘最寂靜’으로 되어 있다.

이 글자들을 부를 때 들어가게 되는 42반야바라밀의 문에 대해 설하는데, 그 42가지 글자는 다음과 같다.

a -ja -p'a -ts'a -da -la -□<sup>23)</sup> -ba -d'a -ša -ta -na -ya  
 阿 -羅 -波 -者 -多 -邏 -茶 -婆<sup>24)</sup> -茶 -沙 -他 -那 -耶

sa -g'a -sa -ma -ga -sd'a -šā -ša -ta -ydza -k'a -dza  
 史吒 -迦 -婆 -摩 -伽 -娑他 -社 -室者 -陀 -奢 -佉 -叉

sd'a -ysa -pa -p'a -ṭa -sma -g'sa -ha -dzha  
 娑多 -壤 -頗 -婆 -車 -娑摩 -訶婆 -訶 -伽

ḍha -ṇa -p'ha -ha -dha -d'sa -dza -daniya<sup>25)</sup>  
 吒 -拏 -娑頗 -娑迦 -闍 -多娑 -佉 -陀<sup>26)</sup>

이러한 42가지 글자와 42가지 반야바라밀 법문을 마친 선지중에는 다음 선지식으로, 선재에게 현승 우바이를 소개한다. 만주어로 현승은 “mergen i etehengge”(지혜의 승리)이고, 우바이는 “ubasica”이다.<sup>27)</sup> 만문 ubasica는 범어에서 음역하였을 수도 있고, 혹은 한역의 음역을 만주어로 다시 옮긴 것일 수도 있다. 현승 우바이가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견고해탈 장자이며, 견고해탈은 만주어로 “beki akdun umesi ukcaran”(견고하고 단단하게 ‘완전히 벗어남[해탈]’)이다.<sup>28)</sup> 견고해탈 장자가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묘월 장자이며, 묘월은 만주어로 “ferguwecuke biya”(놀라울 정도로 기묘한 달)이다.<sup>29)</sup> 묘월 장자가 안

23) 이 부분은 마모되어 글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역의 茶에 해당하며, ‘徒假反’이라 하여 ‘다’로 발음된다고 되어 있다.

24) 『건륭대장경』(제28책, p.175 상단)에는 ‘娑’로 되어 있다.

25)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90> 22행 - <華嚴經續入法界品 上193> 7행.

26) 『대정장』10, p.877上-中.

27)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93> 31행. 만문 원문의 글자가 흐릿하나 우바이의 범어에 견주어 “ubasica”로 전사하였다.

28)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94> 26행.

29) <華嚴經續入法界品 上195> 30행.

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무승군 장자이며, 무승군은 만주어로 “eterengge aku, cooha”(이김이 없는 군대)이다.<sup>30)</sup> 그리고 무승군 장자가 안내하는 다음 선지식은 시비최승 바라문이며, 만주어로 시비최승은 “ten i wesihun šibig‘a”(극히 높은 시비)이고 바라문은 “biraman”이다.<sup>31)</sup> 시비최승 바라문이 안내하는 선지식은 덕생 동자와 유덕 동녀이며, 만주어로 덕생은 “erdemu ci banjinaha”(덕으로부터 발생한)이고 유덕은 “erdemungge”(덕이 있음)이다.<sup>32)</sup> 덕생 동자와 유덕 동녀는 선재에게 환주 법문을 설하였고, 자신의 해탈을 말하고 나자 모든 선근이 부사의한 까닭에 선재의 몸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답게 빛났다.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만, 6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이들이 선재에게 미륵보살을 찾아가도록 인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들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 및 6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IV. 번역 용어에 보이는 만주어 어휘의 확장

만주어는 여진어의 후계 언어로서, 몽골어 및 한어에서 외래어가 다수 유입되었다. 건륭제는 만주어에 유입되어 단순히 음역으로만 쓰이고 있는 한어가 만주어를 침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어를 음차하여 만주어로 쓰고 있는 어휘들을 순수 만주어로 의역하고자 하였는데, hui gi sy(會計司), dzung du(總督) 등이 그러한 예이다.<sup>33)</sup> 이러한 예는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도 보인다. 즉 보살을 fusa라 하고, 경(經)을 ging이라 한 것 등이다. 그리하여 여과없이 만주어에 혼입되어 쓰이고 있던 한어 어휘가 만주어로 의역되었는데, 예를 들어

30)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95> 29행.

31) <華嚴經續入法界品 下196> 2행.

32) <華嚴經續入法界品 上197> 11행, 13행.

33) 이훈, 앞의 논문, p.184.

dorgi yamun(內閣, ‘안의 衙門’ 의미), jeo i saraci(知州, ‘州를 아는 자’의 의미) 등이다.<sup>34)</sup>

이와 유사한 예를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 찾을 수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가 구법의 과정에서 모든 선지식들에게 일관되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라는 것인데, 이때 보살행은 곧 fusa i yabun(‘보살의 행’이라는 의미)이며, 보살도는 fusa i doro(‘보살의 도’라는 의미)이다. 또한 『화엄경속입법계품』에 보이는 천주광 동녀, 공덕(功德), 환망(幻網) 등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천주광은 만주어로 abkai ejen i eldengge이며, 그 뜻은 ‘하늘의 주인의 빛남’이다. 이것은 한자인 천(天), 주(主), 광(光)을 각각 만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한자의 뜻을 순전히 만주어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ungge erdemu는 공덕을 각각 번역한 것이며, “wali i asu”는 요술의 그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환망에 대해 그 뜻을 풀이하어 만주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hūbarak i yafan”(僧의 정원: 僧伽藍)이나, “booci tucike”(집으로부터 나간: 출가), “umesi ukcaran”(완전히 벗어남: 해탈)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에 사용된 단어는 깨달음과 관련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는 차별된다. 만문대장경의 편찬 과정에서 종교 용어의 음역에 많은 주의가 기울여졌고 가능하면 한문으로 번역된 용어보다는 산스크리트 원본에 밀접한 형태가 채택되었다.<sup>35)</sup> 만주어와 한글은 계통이 비슷한 언어로서, 한문과 달리 산스크리트에서 곧바로 만주어로 음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산스크리트 음역과 만주어의 결합 형태이다. 그 예로 마야부인은 만문 원문을 전사하면 maya fujin인데, maya는 범어를 만주어로 음역한 것이고, fujin은 만주어로 왕이나 버일러의 부인, 혹은 제후의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34) 이훈, 앞의 논문, pp.184-185.

35) 마크 C. 엘리엇, 『건륭제』, 양휘웅 옮김(서울: 천지인, 2012), p.139.

그러므로 *maya fujin*은 범어 고유명사를 만주어로 음역한 것과 부인을 뜻하는 만주어가 합쳐진 어구임을 알 수 있다. 또 불교경전에 빈번하게 보이는 ‘강가강’을 들 수 있다.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는 “g’angg’a birai yonggan i ton i gese”(항하의 모래 수처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g’angg’a bira”는 항하, 즉 인도의 갠지스강을 말하는데, 범어 *gaṅgā-nadī*에 해당한다. “g’angg’a”는 범어 *gaṅgā*를 만주어로 음역한 것이고, “bira”는 만주어로서 ‘강’이라는 뜻인데 범어 *nadī*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g’angg’a bira”는 산스크리트 음역과 만주어 의역이 결합된 어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반야바라밀의 번역에서도 보인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의 실천 덕목은 6바라밀이다. 그 중 대표격인 반야바라밀이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는 “sure baramit”로 되어 있는데, “sure”는 만주어로 ‘지혜’라는 뜻이고 “baramit”는 바라밀다를 음역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의역이 앞에 오고 음역이 뒤에 온 경우이다. 또한 보리수의 만주어 번역인 “bodi i moo”(보리의 나무)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스크리트와 만주어의 조합에서, “*maya fujin*”, “g’angg’a bira”, “mag’ada gurun”(마가다국) 등의 단어 결합 방식은 불교 경전이 중국에 전해져 한역될 때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다. 즉 건타라국(乾陀羅國), 기사굴산(耆闍崛山), 만타라화(曼陀羅花) 등은 범어의 음역 부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하더라도 뒤에 부가된 나라[國], 산(山), 꽃[華] 등을 통해 그 단어가 지시하는 바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된다.<sup>36)</sup>

둘째는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만주어로 번역한 형태이다. 이것은 주로 불교 교리 용어에서 나타난다. 예를들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delesi akū unenggi hafuka bodi’(위없는 진실을 깨달은 보리의 마음)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범어의 뜻을 만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경우 범어의 한역(漢譯)인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한글로 해석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 만문에서 한글로 번역한 문장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고 생각된다.

36) 김이경, 「漢譯 불전의 외래어 수용 현상 연구－‘梵語 유래 외래어’와 ‘英語 유래 외래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57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0.8), p.216.



그리고 여래는 ‘ineku jihe’(원래 그대로 오신)로 번역되었는데, 이것 역시 범어의 뜻을 만주어로 번역한 것이라 하겠다. 만문 경전에서는 “ineku jihe fucihi”(여래 부처님)라고 하여, 한역 경전의 ‘부처님 여래[佛如來]’와 비교된다.

셋째는 『입법계품』에서 구법(求法)의 주인공인 선재에 대한 만주어 번역인데, 이것은 예상 가능한 만주어 번역의 범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 선재는 “manibadara”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계품』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용어로 보인다. 즉 “mani”는 범어 maṇi의 음역으로 ‘보배’라는 뜻이고, “badara”는 범어 bhadra를 음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badara”는 ‘어진이[賢]’로 번역되므로 “manibadara”는 ‘보배로운 어진이’라는 뜻이 된다. 범어로 선재는 Sudhana인데, 『화엄경속입법계품』에서는 Sudhana의 음역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진이’라는 뜻의 “manibadar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한역의 ‘선재(善財)’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른 번역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선재의 출생 배경과 관련지어 볼 때 “manibadara” 역시 넓은 범주에서는 선재에 대한 번역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문 『화엄경』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6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의 처음에 문수사리보살이 선재를 만나는 부분에서, 문수사리보살은 ‘선재’라는 이름에 대해 두 가지 인연을 설하는데, 그 하나는 재물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동자가 일찍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었다는 것이다.<sup>37)</sup> 만문에 보이는 “manibadara”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입법계품』에서 선재가 구법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질문하는 ‘보살행’은 궁극적으로는 보현행이라 하겠는데, 보현행은 보현보살의 실천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보현의 범어는 Samantabhadra이다. 선재는 있는 곳에 따라서 곧 그 지위가 일체에 두루하기 때문에 보현의 지위와 같다고 한다.<sup>38)</sup> 그러므로 『화

37) 『대정장』9, p.688上-中.

38) 法藏, 『探玄記』卷18(『대정장』35, p.454上), “隨在則彼位遍一切故如善賢位.”; 全海住, 『入法界品の女

엄경속입법계품』에서 선재를 ‘manibadara’로 번역한 것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설해져 있듯이, ‘선재’라는 단어가 가지는 ‘재물’·‘선근을 심은 이’의 의미에 보현을 뜻하는 “bhadra”를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매우 창의적인 만주어 번역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당시 번역자들이 어휘 선택에 매우 심사숙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뛰어난 경전 해석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에 나오는 지명, 인명, 선지식의 이름 등은 번역에 있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문에 비해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만주어의 장점을 살려 maya 등 범어 고유명사의 경우 만주어로 음역하여 범어의 여운을 지니도록 하였고, 보살·부처 등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온 한역 용어들은 한자 발음을 그대로 만주어로 옮겼다. 그리고 천주광 등의 인명에서 보듯이, 한자의 뜻을 만주어로 번역한 용례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륭제 당시 만문대장경 번역자들은 ㉠ 만주어로 표현 가능한 범어 고유명사는 음역하고, ㉡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동안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사용되어져 온 한역 용어는 한자 발음 그대로 만주어로 옮겼으며, ㉢ 한역 용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풀이하여 만주어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륭제의 만주어 보호 및 어휘 확장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었을 테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했을 것이고, ㉡의 경우는 되도록 지양되었을 것이며 이 경우 가능하면 ㉢로 유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V. 결 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서역을 거쳐 중국, 한국, 일본, 티벳, 몽골 등지로 전파되었으며, 불교가 전해진 곳에서는 그 지역의 언어로 불교경전이 번역되었

---

性善知識에 대한 考察, 『한국불교학』 제23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7), p.327에서 재인용.

다. 그 중에서도 한역 경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지로 전해져 폭넓게 유통되었으며,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불교학 논의의 주 텍스트는 한역 경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팔리어, 범어, 티벳어로 쓰여진 경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들 경전을 토대로 한 불교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만주어나 몽골어로 번역된 경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주어와 한글은 교착어로서, 언어 계통을 같이한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만문대장경은 북방 민족의 언어인 만주어로 적혀 있지만 만주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한글과 유사점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만문대장경 역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건륭제는 당시에 불교 교리와 언어에 뛰어난 학승들을 번역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 범어에 능통하였고 또 불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만주어로 경이 번역되면 이에 대해 상세히 교감하는 등 만문대장경의 편찬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륭제는 티벳 승려인 장가호도극도에게 만문대장경의 편찬을 총괄하도록 하고 불설(佛說) 『감주이(甘珠尔)』를 만문으로 번역하게 하였다. 이는 만문대장경의 저본이 티벳대장경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현재 만문대장경의 저본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을 한역과 대조해 본 결과, 지바하라가 한역한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선지식의 이름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화엄경속입법계품』에는 한역자인 지바하라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한역대장경에서는 보통 경의 제목 아래에 그 경을 한역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만문대장경에는 한역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만문 『화엄경속입법계품』은 체재나 번역 용어 면에서 한역과 차이가 있다.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내용이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저본을 한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한역자인 지바하라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또 체재와 번역 용어에 있어서도 한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저

본을 어느 하나로 한정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만문대장경의 저본은 그 각각의 경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만문대장경 각 경(經)들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만문대장경의 저본을 밝히는 데 있어 한역대장경 외에도 티벳대장경, 몽골어대장경 등을 상호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 1. 원전류

-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大正藏』10)
- 『華嚴經』 「入法界品」(60卷)(『大正藏』9)
- 『華嚴經』 「入法界品」(80卷)(『大正藏』10)
- 『金剛經』(『滿文大藏經』 52函)
- 『大般若經』(『滿文大藏經』 1函)
- 『度世品經』(『滿文大藏經』 57函)
- 『普賢所說經』(『滿文大藏經』 57函)
- 『華嚴經續入法界品』(『滿文大藏經』 57函)
- 法藏, 『探玄記』(『大正藏』35)
- 『大清高宗純(乾隆)皇帝實錄』(台灣華文書局總發行)

### 2. 단행본 및 논문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제7권, 東京: 大東出版社, 1968(昭和 43).
-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東京: 岩波書店, 1981.
- 羅文華, 『乾隆滿文大藏經繪畫 藏傳佛教衆神』上, 故宮博物院 編,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 마크 C.엘리엇, 『건륭제』, 양휘웅 옮김, 서울: 천지인, 2012.
- 이재창, 『불교 경전의 이해』, 서울: 경학사, 2002.
- 해주 스님, 『화엄의 세계』, 서울: 민족사, 2003.
- 김이경, 「漢譯 불전의 외래어 수용 현상 연구-‘梵語 유래 외래어’와 ‘英語 유래 외래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57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0.8, pp.209-234.
- 마르쿠스 빙겐하이머, 「滿文大藏經 電子書庫」, 『만주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pp.167-184.
- 宋康錫, 「滿文『般若心經』譯註」, 『만주연구』 제12집, 서울: 만주학회, 2011, pp.264-283.
- 안윤아, 「건륭 시기 『大藏經』의 滿文 번역과 짱까 쿠투투 3세」, 『明清史研究』 제42집,

서울: 명칭사학회, 2014.10, pp.135-158.

- 李勳,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13.
- 林士鉉, 「乾隆皇帝與滿文大藏經·救護日食經」, 『故宮學術季刊』, 臺北, 第32卷 第1期, pp.127-158.
- 全海住, 「入法界品の 女性善知識에 대한 考察」, 『한국불교학』 제23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97, pp.323-358.
- 만문 전자서고 사이트: <http://buddhisticinformatics.ddbc.edu.tw/manchu>

## A Study on the Manchu Edition of the *Huayan-jing xu rufajiepin*(華嚴經續入法界品)

Park, Seo-yeon  
HK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Dongguk Univ.

This paper is a review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chu edition of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Emperor Qianlong, the sixth emperor of the Qing Dynasty, ordered the original text to be translated into Manchu in 1773. The printing woodblocks for the Manchu Buddhist Canon fill 108 crates, and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is in crate number 57. Each woodblock is divided into an upper and lower section, and there are 31 vertical lines in each section. There are also several sutras related to the *Avatamsaka Sutra*(華嚴經) in this crate.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is located between the *Puxian suoshuo-jing*(普賢所說經) and the *Dushipin-jing*(度世品經).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comes straight back from the *Puxian suoshuo-jing* without any form of sutra.

It is noteworthy that its Manchu name is not ‘nomun’ which means sutra, but ‘fiyelen’ which means a part of the *Avatamsaka Sutra*. In other words, the translator seems to have regarded it as a part of the *Avatamsaka Sutra*. The contents of *Huayan-jing xu rufajiepin* starts with Māyā(摩耶)’s guidance Sudhana to go to see Surendrābhā(天主光) and ends with the preaching of Śrīsaṃbhava dāraka(德生童子) and Śrīmatī dārikā(有德童女). I also compared its content with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Gaṇḍavyūha Sutra* and found them very similar. I also found the content of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to be very similar to the *Dafangguangfo Huayanjing ru fajie pin*(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The names of the 11 sages

mentioned in both are almost identical. However, I could not find the name of the translator, Jivahara, in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It seems tha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original text of *Huayan-jing xu rufajiepin*. I also compared the terms used in both translations. Most of the Sanskrit proper nouns were transliterated into Manchu. In some places they transliterated commonly used Chinese characters into Manchu, and in other places they actually translated the terms. In some instances they also coined new terms by combining Sanskrit and Manchu, such as the term ‘g‘angg‘a bira.’ They also translated the name ‘Sudhana’ into ‘Manibadara’ which means ‘precious sage.’ I believe that was done after studying the origin of the name ‘Sudhana’ in the *Gaṇḍavyūha* Sutra. That was a unique and practical means of translation. In conclusion, Emperor Qianlong had a policy of expanding usage of the Manchu language, and the Manchu version of the *Huayan-jing xu rufajiepin* was a direct result of this policy.

#### Keywords

*Huayan-jing xu rufajiepin*, Qianlong Emperor, the Manchu Buddhist Canon, Chinese Tripitaka, woodblock, sages in the *Gaṇḍavyūha* Sutra, Sudhana

2015년 11월 06일 투고  
2015년 12월 03일 심사완료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